

지방공무원 30만시대...광주 늘고 전남은 줄어

민선 지방자치 21년만에 ... 광주 7314명·전남 2만604명

소방공무원 가장 많이 증가 ... 사회복지도 대폭 증원

민선 지방자치 시행된 지 21년 만에 광주시와 전남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각각 7314명, 2만6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30만3401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시작된 1995년 말 27만 7387명인 지자체 공무원은 21년간 2만 6014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광주는 6439명에서 7314명으로 증가했고, 전남은 2만1681명에서 2만 604명으로 줄었다.

전국에서 21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으로, 1995년 2만440명에서 지난해 말 4만3786

명으로 증가했다. 복지에 관한 관심 증대와 맞물려 사회복지지도 같은 기간 5명에서 1만9327명으로 급증했다.

전산직도 1526명에서 3523명으로 2배 이상 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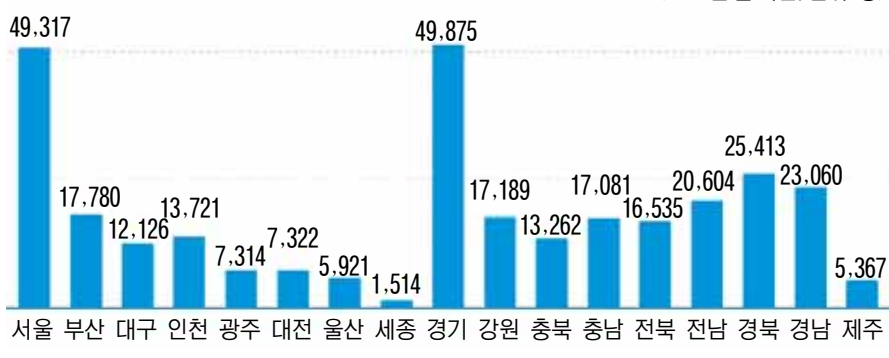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유입 인구가 늘어난 경기도 공무원이 3만4729명에서 4만9875명으로 43.6% 늘어났고, 인천(1만 997명→1만 3721명), 대전(6330명→7322명) 등도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서울시는 5만3956명에서 4만9317명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 경남(2만5114명→2만3060명), 전북(1만6916명→1만 6535명) 등도 공무원 수가 감소했다.

2016년 말 현재 가장 공무원 수가 많은 지자체도 경기도다. 서울시와 경북(2만 5413명)이 뒤를 잇는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3.3세이고

■ 자치단체별 공무원 현원



평균 계급은 7급, 평균 근무연수는 16.4년이다.

지난해 1년간 새로 채용된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은 1만6203명이었으며,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8.5세로, 1년 전의 29.2세보다 어려졌다. 합격자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69.2%로 가장 컸다.

특히 25세 이하 합격자가 2015년 3913명에서 지난해 4786명으로 늘어났고, 10대 합격자도 12명에서 31명으로 급증해

어린 나이에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난해 일반직 공무원의 여성 합격자는 58.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행자부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만1994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신규 채용 인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선 공약, 국정과제 반영 속도내야”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일자리·4차산업혁명 대제”

전남도가 대선 공약이나 지역 현안의 국정 과제 반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 지사는 2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앞으로 한 달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각 사업소·출연기관별로 관련 부처 등과 접촉해 대선 공약이나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사업소·출연기관 토론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분이 밝았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분야에 발 빠르게 대처해 각 기관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연구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다”고 강조했다.

인력 양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소와 출연기관 직원 대상 교육의 경우 그들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무원교육원과 협의하고, 일반도민 대상 교육은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직접 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소·출연기관 토론회도 향후 보고 방식이 아니라 협력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출연기관과 사업소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앞으로 일상적인 것을 보고하는 현재의 형식에서 벗어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방안 및 협력해야 할 부분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 주상절리대 형성시기·규모·위치 독창적”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워크숍

세계 지질학적 가치 지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앞두고 있는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형성시기나 규모, 위치가 독창적이어서 세계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국제워크숍’에서 허민 전남대 부총장이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세계적 가치’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워크숍은 해외 전문위원과 국내 지질공원 전문가가 모여 무등산 주상절리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담양 죽녹원 등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지질명소와 역사문화명소의 현황을 둘러보고 무등산권의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나아갈 방법을 토론했다.

워크숍에 이어 인증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현장실사는 7월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허 부총장은 “주상절리대는 도심속 해발 750m 이상 되는 내륙 산상(山)에 위치해 매우 독창적이며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주상절리대는 8500만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됐으며 전체면적은 최



윤장현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무등산권 지질공원 국제 워크숍’ 개최식에 참석해 정병석 전남대 총장, 이브라힘 코무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부회장, 크리스틴 레몬 세계지질공원위원회 위원, 이수재·전용문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장실사위원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소 11㎢ 이상 대규모로 단일 절리면의 크기가 세계 최대급인 7m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유리 공룡 화석지, 고인돌 유적지, 운주사, 적벽 등도 세계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지질공원 전문가 우연 팀장은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나아갈 발전방향으로 지자체와 국립공원간 협력, 시민단체인 무등산 보호협회의 활동 등을 강조했다.

해외 전문가로 참석한 아일랜드의 커스틴 레몬은 “세계 지질공원이 각각 지질학적 특징과 운영 등에서는 다르지만 철학과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같다”며

“지질유산에 대한 교육, 보전 및 학술적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무등산은 자연 지질학적 명산일 뿐만 아니라 광주의 역사이자 시민이 의지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품는 산이다”며 “무등산이 우리의 삶이자 정신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 인류가 공유할 가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대한지질학회 용역 추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IGGP) 예비실사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

으며 내년 4월 최종 결정된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면적은 광주와 담양, 화순 일부 등으로 총 1051.36㎢다.

지질명소는 무등산 서석대, 서유리 공룡 화석지 등 20곳, 역사문화명소로 아시아 문화전당, 죽녹원 등 42곳이 있다. 지질공원은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지정된 제주도가 있고 청송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심사를 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 33개국 120곳에 세계지질공원이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에너지밸리 투자 1호 보성파워텍 나주공장 준공

변압기 등 생산시설 가동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에 조성되는 에너지 밸리 최초 투자협약 기업인 보성파워텍이 29일 나주공장을 준공했다.

보성파워텍은 이날 나주 혁신 산단에 새 건물, 한전KDN, 전남도, 나주시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나주공장 준공 기념식을 열었다.

보성파워텍은 2015년 3월 투자협약을 맺고 지난해 4월 착공해 1년여만에 변압기와 개폐기 생산시설을 갖춰 공장을 가동했다. 나주공장에서는 배전설비용 개폐기,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력변환시스템(PCS), 전기차 충전기, 변압기 제품을 우선 생산하고 앞으로 전기차용 배

터리도 생산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회사 총매출액의 절반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에너지 밸리 혁신산단 활성화, 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

보성파워텍은 1970년 설립된 전력기 자체 전문생산업체로, 한전의 전력산업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2013년 9월 한전우주 협력사로 선정됐으며 방글라데시 등에 송전탑을 공급해 연 9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기도 했다.

혁신산단에는 현재 59개 업체가 분양 계약을 했으며, 이 가운데 12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19개 기업이 공장 설계 또는 착공 단계에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감사원, 4대강 감사 사전조사 착수 ... 방문조사도 검토

MB정부, 380조 특수채 발행

감사원은 이번 주 초부터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제출한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 내용을 검토했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이들 부처를 직접 방문해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는데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사전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

과를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이번 주 초 4대강 사업 감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일종의 감사준비단으로, 필요한 경우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감사국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다른 부서 감사관들도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는데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

연합뉴스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4만 7천원부터**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